〈부산불교100년史〉 발간 시동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 100년사 포럼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11월 17일 〈부산불교100년史〉 발간을 위해 집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다. 종합토론서 발제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부산불교 100년의 역사를 담을 〈부산불교100년史〉 집필 방향을 공유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 집필 방향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부산불교가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재고찰해 객관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됐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11월 1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불교100년史〉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최영호 교수(동아대)는 "편찬을 위해선 먼저 책 구성 체계 확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편찬 의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며 "내용은 근현대 100년 동안 부산에 불교와 사찰이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그 위상에 맞게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객관성 △신뢰성 △형평성 △일관성 △시기성 △구조적 이해성 △역사 · 문화적인 명분 등을 지표 삼아 집필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3.1운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불교의 100년을 고찰하는 〈부산불교100년史〉 발간을 추진 중이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월 1일 발간이 목표다. 부산불교계가 주도한 독립운동과 시대별 주요 활동 및 영향을 되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6월 한마음선원부산지원에서 동아대 인문과학대학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럼은 1부 '부산불교 100년사의 방향'이 진행됐으며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집필위원장 화랑 스님이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의 역사적 의의'를 기조발표했다. 이어 '부산불교 100년사 기술방향'을 이찬훈 교수(인제대), '부산불교 100년사의 구성 체계와 항목별 기술내용'을 최영호 교수(동아대)가 설명했다.

객관성 높여 신뢰 확보 후
2019년 3.1절 맞춰 발간
불교 독립운동가 발굴 등
"뜻 깊은 호국정신 불사"

화랑 스님은 "1905년 강점기화 될 때 교육 계몽운동에 앞장선 교구본사의 노력이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주된 동력이 됐다"며 "1919년을 기점으로 설정하기보단 그 전 과정을 잘 풀어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성월 스님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의 자료가 많지 않다. 잘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불교건축, 불교근현대문학, 불교문화재(석조, 회화, 조각, 공예) 등 14개 주제를 담은 다채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화선 금정중 교사는 "부산불교의 뿌리, 정화 운동이 범어사 동산 스님을 주축으로 시작됐다. 동산 스님의 법맥과 전법, '4.10 승려대회' 등 불교정화 운동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는 집필위원장 화랑 스님 및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서병수 시장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박대성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부산불교계 스님과 학생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불사다"며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부산불교 역사포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기자

'재가 전법 지도자' 역할 · 필요성 논의

혜원정사, 12월 10일 혜원시민포럼

재가 전법사 양성 필요성과 전법의 참된 의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10일 오후 1시 혜원정사 교육관에서 '제1회 혜원시민포럼-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을 통해 새로운 재가불자 지도자상, 재가 전법사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포교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은 제1발제 '전법의 교학적 토대'는 조준호 교수(고려대 인문학 연구소)가 발표한다. '전법의 교학적 토대'는 초기불교로 알아본 전법의 참된 의미와 사상 원리, 역사 배경을 함께 고찰해 전법의 자세를 되돌아본다. 제2발제는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은 백도수 교수(능인불교대학원대)가 맡는다.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에서는 재가 전법사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회 참여 및 윤리를 강조한다. 제3발제는 '재가불자 지도자상의 정립'으로 이도흠 교수(한양대 국문학과,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가 발표한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재가 지도자의 역사 및 사회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하고, 재가자의 주체적인 역사 사명과 역할을 설명한다. 논평은 각성 스님(혜원불교교육원장), 목종 스님(전법도량 회장), 윤종갑 교수(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과)가 맡는다.

혜원시민포럼은 혜원정사에서 운영하는 혜원불교교육원 제26기 졸업을 맞아 개최된다. 졸업생에게 새로운 전법사 역할을 제안하고 뛰어난 재가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특히 새로운 재가 지도자, 전법사의 필요성을 제안 강조하는 자리다.

주지 원허 스님은 "포교사 과정은 사실 재가 지도자로 부르긴 역량이 부족하다"며 "스님 외 재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이 있다. 교육 불사를 강조하고 새로운 재가불자 지도자상을 제안하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중구불교연합회 내달 창립법회 연다

12월 6일 미타선원서

지난 4월, 부산 중구지역 5개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부산중구불교연합회가 창립법회를 연다.

부산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12월 6일 오후 2시 미타선원서 '부산광역시 중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다. 현재 협회에는 고심정사 · 미타선원 · 대각사 · 수도암 · 용해선원 · 일성사 등 총 6개 사찰이 참여했다.

창립법회서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경선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며,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과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무성 국회의원, 김은숙 중구청장 등이 축사를 전한다. 특히 중구불교연합회는 이날 이웃사랑 쌀 전달식을 통해 자비나눔을 시작으로 첫 행보를 펼칠 계획이다.

중구불교연합회 임원진은 △회장 종호 스님(미타선원) △수석부회장 일성 스님(고심정사) △부회장 일준 스님(정수사) △감사 거산 스님(수도암)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장은 성곡 스님, 사무차장은 고도 · 법선 스님이 맡았다. (051)253-8687 하성미 기자

제27회 山海原문화상 수상자 선정

문학 한후남 · 예술 김호준 등… 시상식 12월 11일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제정한 제27회 (향기로운)산해원문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수상자는 △문학상 한후남 경남문인협회 부회장 △예술상 김호준 창원시청소년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언론상 박현오 경남신문 전무이사 △행원상 강수찬 진해예술촌장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창원풀만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한후남 수필가는 1990년 수필 '유자차 만들기'로 등단, 경남문협 수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수필강좌와 사보 발행을 통해 지역 문학인 배출과 수필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김호준 작곡가는 마산예총회장, 마산음악협회장, 창동예술촌장을 역임하며 지역을 소재로 창작가곡을 작곡, 지역문화콘텐츠발전에 기여했다. 박현오 전무이사는 1986년부터 경남신문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창달에 기여했다.

강수찬 수필가는 진해예총회장, 진해예술촌장, 계간진해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주)문화법인의 대표로 각종 장학사업 후원과 사회 환원에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기장 고불사, 장수 마을 孝 사찰로!

제1회 효문화 잔치 개최



부산 기장 장수마을로 이름 난 고촌 마을에 위치한 고불사가 효 문화잔치를 개최했다.

고불사(회주 정오)는 11월 18일 고촌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1회 효 문화잔치를 경내에서 개최했다.〈사진〉 개산 7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효 문화잔치는 고촌로와 고불사를 잇는 진입로 개통을 동시에 축하하는 자리였다.

회주 정오 스님은 직접 음식을 나르며 봉사하고 어르신의 손을 잡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어르신을 위해 지역 내빈들도 방문했다. 윤상직 국회의원, 오규석 기장군수,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회신도회장이 축제에 함께했다.

정오 스님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과 국으로 공양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바람을 이뤘다"며 "진입로도 개통했으니 자주 고불사에 찾아주시고 쉬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일갑 (재)시공문화재연구원장은 고불사를 소개하며 "문화재 지표 조사 중 수습된 기와편을 보면 고불사와 그 주변 지역 일대는 7세기 전후 최초 가람이 조성됐음을 알수 있다"며 "1300여 년 전에 사찰이 조성됐고 고불사는 기장에서 가장 오래된 절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가을 문화 향연 산사서 즐긴 시간"

제1회 감로사 산사음악회

부산 감로사가 지역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열어 깊어가는 가을을 함께 만끽하는 문화한마당을 마련했다.

감로사(회주 혜총)는 11월 17일 경내에서 제1회 자비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선차와 중국차 등 차 문화를 격조 있게 보여주는 무대를 비롯해 우쿨렐레 연주와 메소드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경내를 가득 채웠다. 아울러 시인들의 시 낭송이 감로사를 찾은 내빈들을 맞았다. 회주 혜총 스님은 매년 실상문학상을 제정하고 불교계 문인을 격려해왔다. 이번 자비나눔 산사음악회는 혜총 스님과 인연 있는 시인과 다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스님 및 지역민 300여 명이 찾았다.

혜총 스님은 "대외 활동에 주력하며 부산 발전과 복지 그리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음악회는 안으로 집중해 감로사 모든 불자와 지역민을 위해 개최한 행사"라며 "자비나눔이란 제목은 무엇이든 함께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눔이란 의미다. 문화를 함께 나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